

지방 화원에서 어진 화사로: 채용신의 초기 화풍 정립과 1900년 어진 제작

민길홍*

- I. 서론
- II. 1899년 전주 사적(史蹟) 조성 프로젝트 참여
- III. 1896년 <송명선 초상>을 통해 본 초기 화풍
- IV. 1900년 한양 소환과 어진 제작
- V. 결론

I. 서론

1850년에 태어나 1941년까지 90세의 장수를 누린 화가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은 실제 인물을 눈앞에 보듯 극사실적인 화풍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다. 1900년, 50세의 채용신은 조석진(趙錫晉, 1853~1920)과 함께 주관회사 자격으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어진 모사에 참여하게 되었다.¹ 어진 제작은 일반적으로 궁중화원이 수행하는 업무였으며, 실제로 조석진은 궁중화원이었지만 채용신은 서울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지방인 전주에서 활동하던 화원이었다. 당시 고종은 태조 존숭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태조 어진

* 문화체육관광부

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태조 어진>에는 화가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오른쪽 상단에는 '태조고황제어진 광무사년 경자(1900년) 이모(太祖高皇帝御眞 光武四年 庚子 移摸)'라는 표제가 적힌 붉은 비단이 부착되어 있다. 『영정모사도감 의례』 및 『승정원일기』와 같은 공식 기록을 통해 조석진과 채용신이 주관회사였음을 알 수 있다. 태조 어진 제작에 대해서는 이성미, 『어진의례와 미술사—조선국왕 초상화의 제작과 모사』 (소와당, 2012).

모사도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인데, 그는 어떻게 이처럼 중대한 과업에 주관화사로 발탁될 수 있었을까? 굳이 전주에서 화원을 불러올 필요가 있었을까?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채용신은 1886년 37세에 무과에 합격한 후 지방에서 9년간의 무관직 생활을 하였고, 1895년부터 익산에 거주하면서 초상화를 그리며 지냈고, 1899년에는 고종의 명으로 추진된 전주 건지산 조경단(肇慶壇) 조성 작업에 참여하였다. 한양의 고위 관료가 태조 어진 모사 화가로 그를 추천하였으며, 관련 의궤에서는 그를 ‘전주화원’으로 명기하고 있다. 그 후 1900년 어진 모사의 공을 인정받아 칠곡(경상북도 칠곡) 군수, 정산(지금의 충청북도 청양)군수를 역임하게 된다.

채용신에 대한 기존 연구는 1906년 정산군수에서 물러난 이후 낙향하여 전북 지역에서 활동한 시기에 제작된 초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이는 해당 시기(1906년~1930년대)에 그가 제작한 초상화가 100여 점에 달하며, 이에 비해 1906년 이전의 작품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00년 태조 어진 모사에 참여할 정도의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그 시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00년 이전 채용신이 전주에서 수행한 공적 회화 활동을 전주 조경단 관련 회화 제작을 통해 살펴보고 1896년 <송병선 초상>, 1900년 <민영달 초상> 등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거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자료를 새롭게 소개함으로써 그가 어진 화사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어진 모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1900년 지방화원에서 어진화사로 자신의 커리어 변화를 도모했던 과정을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채용신에게 이러한 커리어 변화는 그가 다시 낙향하여 전라북도 일대에서 전업화가로 30년간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데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II. 1899년 전주 사적(史蹟) 조성 프로젝트 참여

채용신은 무관직에서 물러난 1895년 이후부터 전라북도 익산에 머물며 화원으로 활동하며 그림을 그려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 관련 자료는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1899년 전주 조경단 영건 사업에 참여하였던 이력이 여러 기록과 그림을 통해 확인된다. 조경단 영건 사업의 배경에는 1873년부터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왕조의 정통성 확보와 존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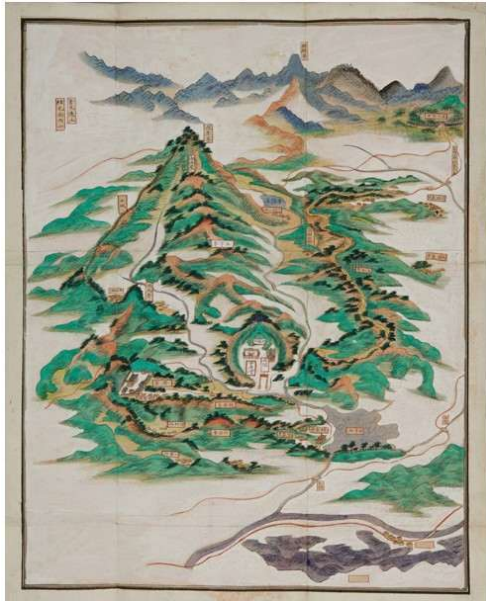


Fig. 1. 채용신, <전주건지산도형(全州乾止山圖形)> Ch'ae Yongsin, *A topographic map depicting Gŏnjisan, the burial site of the progenitor of the Chŏnju Yi clan*, 1899, Color on Paper, 61.2×49.6cm, The Jangseogak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2. 채용신, <조경단비각재실도형(肇慶壇碑閣齋室圖形)> Ch'ae Yongsin, *A topographic map depicting Hall built for a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grave and memorial monument in Chogyŏngdan*, 1899, Color on Paper, 63.2×49.5cm, The Jangseogak (Photograph by the author)

위해 왕실의 진전과 어진의 재정비 작업을 진행해 온 역사가 있었다.²

1899년 고종은 전주 북쪽 건지산에 위치한 태조의 21대조 이한(李翰)의 묘소로 알려진 곳을 찾아 정비하고 제단인 조경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조경단영건청의궤』, 『승정원일기』, 『고종실록』 등을 통해 조경단 건립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1898년 9월 12일, 이종건(李鍾健, 1854~?)이 태조 때부터 이한의 묘가 있는 건지산을 보호하였으나 지금은 백성들이 벌목과 경작을 일삼는 것을 안타깝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10월 24일 건지단이라는 이름의 제단과 비석을 세워 묘역의 보존을 명하였다가 12월 14일 이름이 조경단으로 바뀌었고, 1899년 1월

2 태조 및 열성조의 어진을 제작하고, 자신의 어진과 황태자인 순종의 어진도 제작했으며, 특히 태조를 존송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육, 「대한제국기 왕실의 존송과 조경단 건립」,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I』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영건청이 신설되었다. 3월 21일 조경단을 봉심(奉審)할 재신(宰臣) 이재곤(李載崐, 1859~1943)이 전주에 도착하였고 22일 전라도관찰사 이완용(李完用, 1858~1926)과 함께 건지산 봉심을 한다. 4월 1일 고종은 묘소 추정 장소에 봉분 수축을 명하였고, 5월 9일 조경단 단소를 설치하였으며 5월 26일 조경단 의묘소(擬墓所) 가토(加土)를 완료하였다. 6월 16일 51개의 문자가 새겨진 돌이 발견되었고, 돌을 발견한 이들에게 40원씩 시상을 하였다. 높이 4척, 둘레 89척 용미 길이 26척의 봉분이 만들어졌다 한다. 7월 11일에는 재실(齋室)과 비각(碑閣)을 제외한 조경단 공사를 마쳤다. 비석은 1900년 1월 28일 세워졌다.³

이때 조경단 영건을 추진하면서 그려진 <전주건지산도형(全州乾止山圖形)>과 <조경단 비각재실도형(肇慶壇碑閣齋室圖形)> 두 그림은 고종에게 조경단의 풍수 형국과 건물들의 위치를 보고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건지산도형>은 조경단을 포함하는 건지산을 중심으로 전주를 넓게 조망하였고,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은 조경단 구역과 재실만 그렸다. 두 그림 모두 화면 크기가 가로 44.5cm, 세로 57.3cm로 같고, 접어서 장황한 접포식 장정 방식이 동일하며(fig. 3) 큰 두꺼운 종이 위에 두 줄의 선을 구획하고 그림을 그린 종이를 그 위에 붙였다.⁴ 또한 표제를 쓴 방식과 서체도 동일하다(fig. 4). 따라서 이 두 그림은 같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림이 그려진 종이는 소용돌이와 유사한 무늬가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fig. 5). 특히 덕진지(德津池)를 보면 확연하게 무늬가 보이며, 그림을 접어서 보관했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 틈새로 붉은색 종이가 보이는데 이러한 문양이 있는 종이를 뒤집어서 그림을 그렸거나 혹은 배접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fig. 6).⁵ <전주건지산도형>은 도로는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하천은 담청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원산과 내산을 청색과 녹색으로 구분하여 지리적 거리감을 의도하는 전통적인 고지도 관습을 따르고 있다. 동쪽을 상단에 두고 중앙에麒麟봉(麒麟峰)을 배치하고 오른쪽에 전주부에서 건지산 도솔봉을 거쳐 조경단으로 이어져 하단에 덕진연못을 지나 신평리와 황방산으로 이어지는 영역을 위에서 부감하여 그렸다⁶. 화면 왼편에는 “청색원산(靑色遠山), 녹색국내산(綠色局內山)”이라 하여 산을 묘

3 류호성, 송민오 역주, 『(전주학총서49) 국역 조경단 영건청 의궤』 (전주역사박물관, 2021).

4 선행 연구로는 이예성, 「19세기 특정한 지역을 그린 고지도와 회화」,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 지도』 (민속원, 2005); 박정혜, 「광무 연간 국조(國祖) 묘역의 확립과 회화식 지도의 제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1 (사회평론, 2006). 여경훈, 「대한제국기肇慶壇營建과全州史蹟地圖 제작」 (한국학중앙연구원 미술사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22).

5 책 표지로 사용되는 단선유지일 가능성도 있다. 19세기 후반 서적 표지에 대해서는 전지연, 「역사의 시대별 표지 장황 연구 및 복원」, 『생활문화연구』 35 (2019), pp. 69-108.



Fig. 3. 채용신, <조경단비각재실도형>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A topographic map depicting Hall built for a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grave and memorial monument in Chogyŏngdan*, 1899, Color on Paper, 63.2×49.5cm, The Jangseogak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4. 채용신, <전주건지산도형>, <조경단비각재실도형> 표지, Ch'ae Yongsin, Cover of two paintings, 1899, Color on Paper, 61.2×49.6cm, 63.2×49.5cm, The Jangseogak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5. 채용신, <조경단비각재실도형>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A topographic map depicting Hall built for a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grave and memorial monument in Chogyŏngdan*, 1899, Color on Paper, 63.2×49.5cm, The Jangseogak (Photograph by the author)

사하는 데에 있어서 청색과 녹색의 의미를 구별하고 묵서로 명시하였다. “청색은 원산, 녹색은 내산의 국부(局部) 묘사한다.”는 것으로 실제 기린봉이라 적힌 원산을 청색으로 그린 이유를 밝힌 것을 볼 수 있다. 상단에 전주부성 아래에는 ‘전주부에서 의묘소까지 10리[自府北距疑墓所十里]’라고 적혀 있고 조경단 안에는 단소, 비각, 홍살문이 그려져 있으며, 산 부분을 제외하고 지면에 흰색 안료를 칠했다(fig. 7). 건지산 도형은 『조경단수호절목등초(肇慶壇守護節目謄抄)』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조망 구도와 그려진 기본 내용은 같지만 수호절목 수록본은 건물을 생략하고 명칭만 적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전주건지산도형>이 동쪽을 위로 한 것과 달리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은 북쪽을 위로 하여 그려졌다. 재실(齋室)을 상단에 배치하고 아래로는 조경단 구역까지를 포괄하였다.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은 <칠광도>, <용진정사도> 등 실경을 배경으로 그린 채용신 그림들과 유사한 구도를 보인다. 산세를 배경으로 부감시로 지역을 넓게 조망하면서 주 소재가 되는 곳들을

6 보통의 산형도나 배치도 성격의 고지도는 남쪽이나 북쪽을 위로 두는 것에 반해, <전주건지산도형>은 동쪽이 북쪽에 해당된다.



Fig. 6. 채용신, <조경단비각재실도형>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A topographic map depicting Hall built for a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grave and memorial monument in Chogyŏngdan*, 1899, Color on Paper, 63.2×49.5cm, The Jangseogak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7. 채용신, <전주건지산도형>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A topographic map depicting Gŏnjiisan, the burial site of the progenitor of the Jeonju Yi clan*, 1899, Color on Paper, 61.2×49.6cm, The Jangseogak (Photograph by the author)

상세하게 그려 넣고 명칭을 같이 명기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건물군 사이의 거리와 방향을 자세하게 적어 넣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조경단 양쪽에는 ‘비각까지 거리가 남쪽으로 27척 3촌[壇至碑閣二十七尺三寸方]’이라 적었고, ‘재실까지 거리가 서북방향으로 409척[壇至齋室四百九亥方]’이라 하여 그림과 함께 재실과 비각, 단소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여 전달하고 있다. 또한 별지를 이용하여 비각의 전면 그림을 추가한 것도 정보 전달에 주된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원편에는 ‘석척견양(石尺見樣)’이라 하여 비석을 만들 때 사용한 석척 견본을 한지로 붙였다. 비석의 모양을 귀부(龜趺), 비신(碑身), 이수(螭首)를 분리하여

그리고 각각의 크기를 상세하게 적었다(fig. 8). 이수는 용조가침(龍彫家簷), 귀부는 귀조롱대(龜彫籠臺)라 하였다. 현재 조경단 안에 비각이 있고 그 안에 고종과 윤용구(尹用求, 1853~1939)가 각각 앞뒀던 글씨를 쓴 비석이 남아 있다(fig. 9). 당시 비석은 경기전에서 땅에 묻어 두었던 미활용 부재를 가져와 사용하였고 비신은 석재가 좋지 않아 새로 돌을 구해와 제작하였다고 한다. 『조경단비석부출마련기(肇慶壇碑石浮出磨鍊記)』와 도형에서 각각 비신 크기가 다른 것은 실제 완성할 때 비신을 크게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⁷

공적 산물이었던 이유로 그림에는 화가의 정보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조경단영건청의궤』 별단(別單)에 ‘화원 전 첨사 채용신’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채용신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⁸ 고증을 위해서는 그의 다른 산수화와 비교가 필요한데 1910년에

7 안선호, 「영건(營建) 관련 자료를 통해 본 조경단(肇慶壇)의 건축 특성」, 『건축역사연구』 32-5 (2023), p. 65.

8 화가가 채용신일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박정혜, 앞의 논문, p. 572. 화풍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채용신과 관련된 지은 것은 여경훈, 앞의 논문, pp. 6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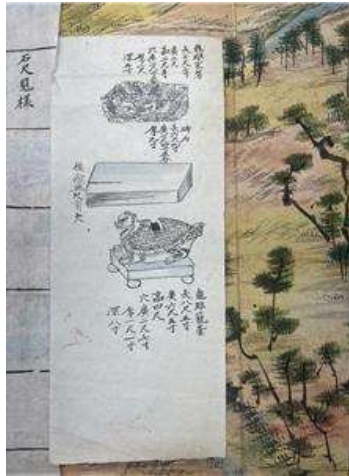


Fig. 8. 채용신, <조경단비각재실도형>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A topographic map depicting Hall built for a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grave and memorial monument in Chogyongdan*, 1899, Color on Paper, 63.2×49.5cm, The Jangseogak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9. <조경단비>, *A memorial monument in Chogyongdan* (Photograph by the author)

그려진 것으로 전하는 <칠광도>와 건물 묘사하는 방법, 필선의 굵기와 강약 조절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⁹ 또한 초가집 묘사에서 노란색으로 지붕을 칠하고 끝에 빗금을 긋는 방법을 공통적으로 보인다. 넓은 전답, 평야 등을 묘사한 부분에서도 붉은색과 녹색을 사용하고 짧은 점선으로 지면의 질감과 입체적 형상을 묘사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fig. 10~13). 그러나 <비각재실도형>과 <칠광도>는 각각 종이와 면이라는 바탕 재질의 상이함이 있고, 두 작품 간에 10년간의 제작연도의 간극이 있어 화풍상의 유사성은 분명하지만 차이점도 보여 채용신의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경단 건립에 들어간 비용을 정리한 책인 『조경단역비명세서(肇慶壇役費明細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명세서에는 1900년(광무4년) 3월의 발간 연대가 적혀 있고, 마지막 장에 낭청전주군수(郎廳全州郡守) 이삼응(李參應), 조경단영건청당상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용(李完用), 별감동(別監董) 곽창근(郭昌根)이 언급되어 있다. 채용신은 5월 28일, 총 39냥 14전을 받았다. ‘건지산도형 화사 전 첩사 채동신 50리 말을 쓰는 비용 7냥 5전,

9 칠광도에 대해서는 민길홍, 「송정과 칠광의 소환—1910년 채용신의 <칠광도>: 이미지를 통해 전하는 도강 김씨 문중의 메시지, 『미술사학연구』 322 (2024), pp. 3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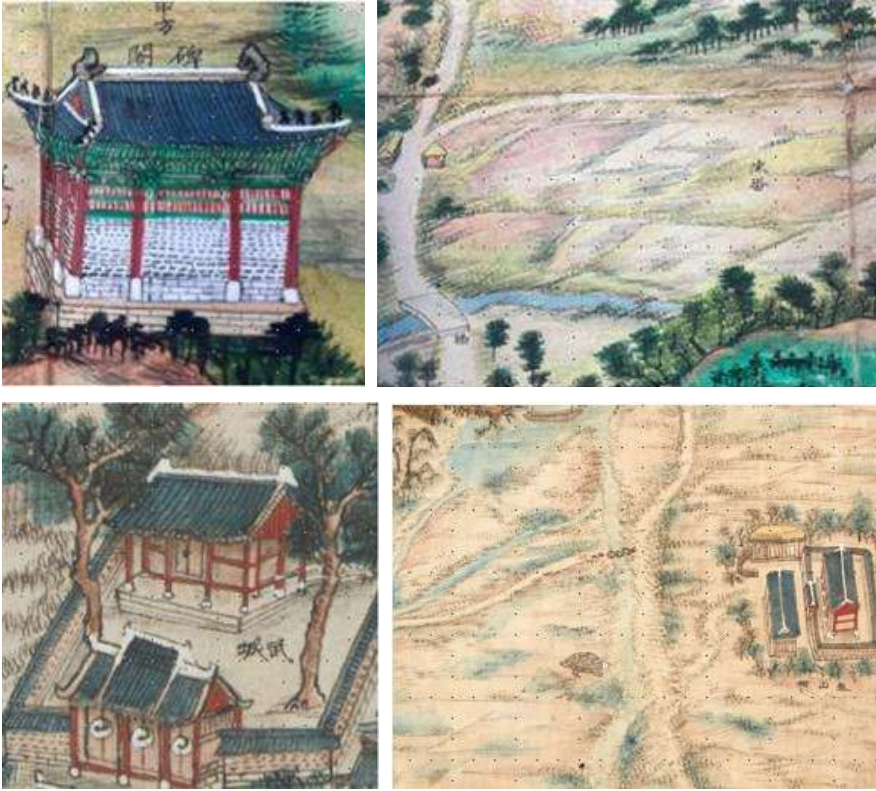


Fig. 10, 11. 채용신, <조경단비각제실도형>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A topographic map depicting Hall built for a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grave and memorial monument in Chogyŏngdan*, 1899, Color on Paper, 63.2×49.5cm, The Jangseogak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12, 13. 채용신, <칠광도>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Ch' ilgwangdo*, 1910, Color on Cotton, 127.7×83.4cm, Songsansa Temple (Jeonju National Museum, Sŏkchi Ch'ae Yongsin hwajo·sansuhwa, p. 180)

9일간 객지에 머무르는 비용[유련비(留連費)] 22냥 5전, 재료비 10냥 4전이라는 기록이 있다.¹⁰ 채동신은 채용신의 다른 이름이다.¹¹ 그는 필요한 과업이 있을 때마다 익산과 전주를 오

10 이 명세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全羅北道編, 『肇慶壇役費明細書』, 1900, p. 137. “雜用……七兩五錢 乾止山圖形畫師 前僉使 蔡東臣 五十里 往返馬貫 二十二兩五錢 九日留連費 三兩四錢 圖形物力價” 이 자료의 소개는 안선호, 앞의 논문.

11 1886년 작성된 『호남계록(湖南啓錄)』에 채동신에 대해 선무군관 37세, 본관 평강, 전주 거주, 부 채권영(蔡權永)이라 기록되어 있다. 채권영은 채용신의 아버지 이름이며, 1886년 37세라는 나이, 본관, 거주지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채동신은 채용신이 무과 급제 후 사용했던 이름으로 생각된다. 『各司啓錄』, 1886년(고종23) 10월 19일; 양진희, 「석지 채용신의

가며 활동하였고, 화역에 따라 각각의 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림의 화풍과 명세서 기록을 통해 이 그림의 화가는 채용신임을 알 수 있다. 비용 지급 시점이 5월 28일이므로, <전주건지산도형>이 그려진 것은 1899년 5월 말을 하한선으로 볼 수 있다.

Ⅲ. 1896년 <송병선 초상>을 통해 본 초기 화풍

전주화원으로 활동했던 것은 확인되지만 1900년 이전 채용신이 그린 초상은 그동안 한 점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채용신이 태조 어진 모사의 주관화사로 추천되는 과정을 보면, 한양 안팎에 초상화를 잘 그리는 화가가 누가 있느냐는 고종의 질문에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이 본인 및 다른 사람들 초상을 그린 바 있는데 본 사람들이 모두 매우 닮았다고 한다는 사유를 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딘가 남아 있을 게 분명한 채용신의 1900년 이전 초상화를 찾는 것은 채용신 초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업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896년에 그려진 독립기념관 소장 <송병선 초상>을 채용신의 초기작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초상은 총 세 점이 남아 있다. 1896년 독립기념관 소장본(fig. 14), 1901년 개인소장본(fig. 15), 연대가 적혀 있지 않은 대전시립박물관 소장본이다(fig. 16). 송병선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자결한 우국지사로 동생 송병순(宋秉珣, 1839~1912)과 함께 활동하였다.¹²

송병선은 고종대에 태릉참봉, 경연관(經筵官), 서연관(書筵官), 시강원자의(侍講院諮議) 등에 차례로 선임되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고 한다. 1885년 옥천으로 이사한 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지역을 돌며 강학 활동을 하였다. 초상화가 그 강학 활동 시기에 그려진 것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개인소장본은 1901년에 그려졌는데 1901년은 군산 임피에서 강회가 있었던 바로 그 해이다. 낙영당 강회와 초상화 제작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강회에는 최익현(崔益鉉)도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다.

회화』(한국학중앙연구원 미술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9), p. 3.

12 1910년에 채용신이 그린 송병순 초상도 현재 3점이 남아 있는데, 모두 송병선 초상과 함께 전래되어 문중에서 보관하던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독립기념관과 대전시립박물관본은 모두 기증품이다. 송병선, 송병순 형제의 초상에 대해서는 민길홍, 「1900년경 채용신의 지역 활동과 초기 화풍의 정립」,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학술세미나 발표집』(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25. 7), pp. 37-44.



Fig. 14. 채용신, <송병선 초상>, Ch'ae Yongsin, *Portrait of Song Pyŏngsŏn*, 1896, Color on Silk, 102.0×78.5cm, Independence Hall of Korea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15. 채용신, <송병선 초상>, Ch'ae Yongsin, *Portrait of Song Pyŏngsŏn*, 1901, Color on Silk, 90.3×51.0cm, Private Collection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16. 채용신, <송병선 초상>, Ch'ae Yongsin, *Portrait of Song Pyŏngsŏn*, the late 19th C, Color on Silk, 91.5×59.0cm, Daejeon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낙영당은 호남 입파에 있는데, (면암) 선생은 연재 송병선을 일찍부터 한번 만나고 싶어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송병선이 기일을 정해, 많은 선비를 모아서 거기에서 강회를 베풀면서 관서 이용원(李容元)을 통해 선생을 초청하였다. 선생은 기별을 듣고 바로 길을 떠났다. …… 옥구에 가서 자천대를 보고 낙영당 모임에 참석하였다. 의관을 성대하게 갖추고 현송(絃誦)이 낭랑하게 울려 퍼졌으니 말세에 거의 보기 드문 일이다.¹³

낙영당 강회에 최익현이 초청을 받아 간 것을 보면 전라북도에만 국한한 강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지역 내외의 많은 유림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01년 4월 채용신은 어진 모사의 공으로 제주받은 칠곡군수직에서 물러나 익산으로 내려와 부친의 삼년상을 치르고 있었다. 군산에서 멀지 않은 익산에 있었던 채용신이 낙영당 강회 당시 방문했을 가능성은 충분

13 『勉菴先生文集』 권3, 附錄, 年譜, 辛丑(1901, 光武5) 선생 69세; 김종수, 「연재 송병선의 생애와 순국」, 『전북사학』 57 (2019), p. 252.

할 것이다. 군산에 모인 유림들이 채용신에게 스승인 송병선 초상 제작을 의뢰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송병선의 문집『연재집(淵齋集)』에는 자신의 초상에 대해 스스로 경계하며 적은 글이 남아 있다.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書畫像自警 초상화에 스스로 경계하는 글을 부치다

大袖方領	큰 소매와 방령 차림으로
欲學程氏	정씨를 배우고자 하였네
貌臞視靜	모습은 야위고 시선은 고요하니
質魯性爾	질박하고 노둔한 것이 오직 너로구나
早服庭訓	일찍 가정에서 가르침 받고
恒念寡過	항상 허물을 적게 하리라 유념하였지
爾學既疏	네 학문은 이미 영성하건만
爾言孔大	네 말은 몹시도 크구나
慕古違時	옛날을 사모하여 시대와 어긋나
畢命丘壑	구학에서 생을 마치니
凡今之人	무릇 오늘날 사람 중에
爾志誰識	네 뜻을 누가 알아주랴

서화상자경(書畫像自警)은 자신의 초상에 스스로 경계하는 글을 부치는 성격으로, 주자(朱子)에서 송시열(宋時烈)로 이어지는 관습을 계승한 것이다. 송시열은 이를 통해 주자 초상 이미지의 권위를 자신의 초상에 포개 놓으면서, 학과 전체를 대표할 만한 권위적 시각 표상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내세우고자 하였다.¹⁵ 이러한 자경을 가져와 자신의 초상에 부치면서 송병선도 그러한 전통을 계승하였던 것이다. 문인들은 자신의 초상화 제작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자신의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수기를 다짐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초상화를 도하

14 송병선 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역, 『연재집』 6 (흐름출판사, 2024), p. 432.

15 김기완, 「노론의 학통적 맥락에서 본 송시열 초상화찬」, 『淵上古典研究』 35 (2012), pp. 293-332.

적 견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학통을 강화하면서 절대적 아이콘으로서의 의미까지 지닐 수 있었다.

세 점 모두 화가의 관지가 없어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는데 19세기말 지방에서 초상화를 잘 그린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던 사람은 채용신이다. 송병선과 동생 송병순 형제는 강회를 통해 각처에 수많은 문인, 제자를 양성하였고, 1966년 송병선 형제의 문인 명단 기록인 『계산연원록(溪山淵源錄)』이 발간되는데, 여기에 채용신의 이름이 올라 있다. ‘선생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 또한 『석강실기(石江實記)』에는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의 문인인 혁재(赫齋) 서진영(徐鎭英, 1886~1929)이 “채용신이 간재(전우) 뿐 아니라 연재(송병선)와 면암(최익현)의 초상도 그렸다”고 하여 현전하는 송병선 초상이 채용신의 작품일 가능성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¹⁷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기록과 함께 송병선 초상의 화풍을 분석하여 화가가 채용신일 가능성을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

채용신이 그린 초상에는 간혹 족자 뒷면에 관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초상화는 뒷면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다. 원래 조선시대에도 초상화에는 관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그려진 목적이 분명하고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화가의 관지는 남기지 않은 것이다. 궁중화원으로 왕실에서 초상화를 도맡아 그렸던 이명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화면에 이름이 남아 있다. 채용신은 1910년에 제작된 초상화부터 채용신의 관지가 적극적으로 남아 있고 그 이전에는 주로 관지를 남기지 않았다. 1900년 <민영달 초상>, 1909년 추정 <이종립 초상>, 1910년 이전 <장태수 초상> 등 1910년 이전에 제작된 초상화에는 대부분 관지가 남아 있지 않다. 품계가 가자되고 정산군수를 역임한 이후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독립기념관 소장 <송병선 초상>에는 화면 상단에 ‘연재선생육십일세진상(淵齋先生六十

16 『계산연원록』은 연재학파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1966년 3월 간행소를 마련하고 전국에 산재한 문인과 후손들에게 통문을 발송하여 편집된 것이다. 제자들의 생년과 본관, 출신지, 처음 선생과 대면한 일자까지 기재되어 있다. 송병선 형제가 교유했던 143명 학자들의 간략한 정보가 수록된 종유록(從遊錄), 공식적으로 송병선 형제와 사제의 연을 맺은 1,100명 문인의 명단인 문생록(門生錄), 송병선 형제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사제의 연을 맺지 못한 214명의 제자들 명단인 급문록(及門錄)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채용신은 급문록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 한편에는 송병선 형제의 문하를 출입하지 않았지만, 평소에 존숭의 뜻을 가진 1,318명의 명단인 존모록(尊慕錄), 재전, 삼전 제자 3천여 명의 사숙록(私淑錄)이 기재되어 있다. 김상기는 채용신이 양선생(송병선, 송병순) 초상을 그려 급문록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석한 바 있다. 김상기, 「淵齋學派의 사상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9 (2016), p. 9; 박학래, 「연재학파(淵齋學派)의 형성과 전개—계산연원록(溪山淵源錄)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50 (2020), pp. 114-115.

17 이두희·이충구 공역, 『석지 채용신 실기』(국학자료원, 2004), p. 56.

一歲眞像)’이라 적혀 있다. 정면관을 취하고 정자관을 쓰고 학창의를 입은 반신상이다. 채용신 작품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눈의 묘사에 있다. 눈동자 홍채를 먹으로 그리고 동공 주변으로 방사선으로 점을 찍어 구사하는 것은 조선시대 초상과 채용신 초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독립기념관본과 대전시립박물관본에서는 동공 주변으로 무언가 흐릿하게나마 점을 구사하려고 했던 초기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눈의 묘사에 있어서는 채용신 초상과 거의 동일하다(fig. 17, 18).



Fig. 17. 채용신, <송병선 초상>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Portrait of Song Pyŏngsŏn*, 1896, Color on Silk, 102.0×78.5cm, Independence Hall of Korea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18. 채용신, <송병선 초상>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Portrait of Song Pyŏngsŏn*, the late 19th C, Color on Silk, 91.5×59.0cm, Daejeon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두 번째 특징은 붓이 지나가지 않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안면에 무수한 붓질을 반복하면서 피부결뿐 아니라 주름진 부분과 안면의 요철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해 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화면에 경자중추(庚子(1900년)仲秋)’와 ‘이조판서(吏曹判書) 민영달(閔泳達) 삼십사세진(三十四歲眞)’이라고 적혀 있는 <민영달 초상>과 1916년의 연대가 있는 <이덕용 초상>을 비교해 보면 특징적으로 드러나며 <송병선 초상>과도 유사하다(fig. 19, 20, 21).¹⁸

18 <민영달 초상>에는 34세 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민영달이 34세일 때는 1892년이므로, 사진 혹은 다른 초상화 원본을 8년 뒤인 1900년에 모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고 이건희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이건희컬렉션’ 중 하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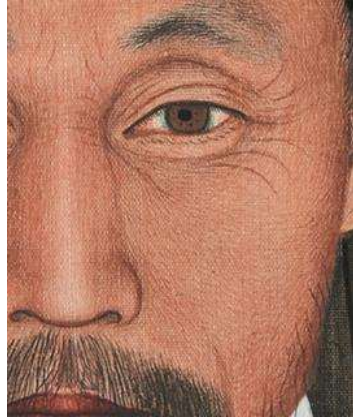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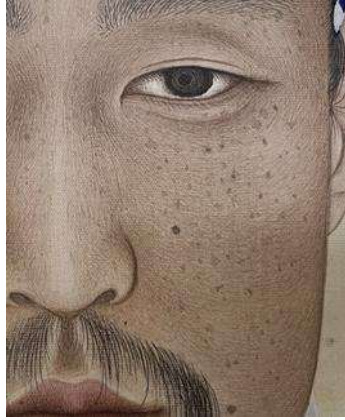


Fig. 19. 채용신, <민영달 초상>, Ch'ae Yongsin, *Portrait of Min Yǒngtal*, 1900, Color on Silk, 102.0×78.5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20. 채용신, <민영달 초상>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Portrait of Min Yǒngtal*, 1900, Color on Silk, 102.0×78.5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or.kr>)
 Fig. 21. 채용신, <이덕웅 초상>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Portrait of Yi Dōkūng*, 1916, Color on Silk, 133.0×60.0cm, Private Collection (Photograph by the author)

이는 채용신 초상이 그 이전과 달라지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붓질의 횡수가 늘면서 결과적으로 피부의 질감과 입체감 모두 성공적으로 성취하여 극사실적인 표현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대전시립박물관 <송병선 초상>은 얼굴을 그린 각도가 측면으로 바뀌었을 뿐 독립기념관 본과 동일한 이목구비와 음영 표현법을 보여주어 같은 시기에 그려졌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선이 부드럽게 모여 면을 이루었던 이명기가 그린 18세기 말 <조항진 초상>이나 19세기 초 <이채 초상>과는 확실히 다르기는 하지만, 채용신이 18~19세기 초상과 다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한편으로는 전통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채용신에 이르러 선묘의 중첩을 통한 보다 사실적인 구현이 가능해진 것은 분명하나 그 근본은 조선시대 초상화에 있다.

<민영달 초상>은 1900년 8월경에 그려진 것이라 어진 제작 당시 채용신의 기량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징적인 것은 금관과 조복의 정교한 묘사에 있다(fig. 22, 23). 금관조복본은 조

<민영달 초상>은 2023년 국립제주박물관 '어느 수집가의 초대' 특별전에 '전 채용신'으로 소개된 바 있다. 필자는 <민영달 초상>은 의자 손잡이의 모양에서 조선시대 교의 손잡이와 다른 그 이후 채용신 초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보이고 돗자리 표현, 흑화의 묘사 등을 포괄적으로 볼 때 채용신이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Fig. 22. 채용신, <민영달 초상>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Portrait of Min Yǒngtal*, 1900, Color on Silk, 102.0×78.5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23. 채용신, <민영달 초상>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Portrait of Min Yǒngtal*, 1900, Color on Silk, 102.0×78.5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선시대부터 그려졌으나 금관의 묘사가 <민영달 초상>만큼 섬세하고 화려한 것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톰하게 만들어 입체감을 의도한 것이 가장 일품이다. 또한 조복의 검정 선 장식은 얇은 두 겹의 비단결이 겹쳐 비취보이는 효과를 위해 먹의 농담과 원형 무늬를 함께 활용하여 묘사하였는데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채용신에게 초상화를 주문한 대신들이 이러한 초상화의 높은 완성도에 만족하여 어진 화사로 그를 추천하게 되었음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런데 <민영달 초상>과 <송병선 초상>은 각각 당시 한양과 지방에서 그려졌는데 그로 인한 차이는 상황에서 확인된다. <송병선 초상>은 조선시대 초상화처럼 별도의 비단으로 상회장, 하회장과 변이를 장황하지 않고 회장은 청색으로 운보문을 그리고, 변이는 먹선으로 화면과 구분한 뒤 나뭇잎 등을 여백 거의 없이 짝 차게 꾸몄다. <민영달 초상>은 실제 청색 운보문 비단으로 상회장 하회장을 꾸민 것이고, <송병선 초상>은 운보문 비단이 아니라 같은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 꾸민 것이다(fig. 24, 25). 필자는 이렇게 변이 뿐 아니라 상하회장까지 모두 하나의 비단 안에 구획하여 그리는 것을 지역에서 성행한 근대 초상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된 성과에 의하면 1910년대 중반까지는 조선시대 비단 장황이 지속되다가 그 이후부터 '그림 장황'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¹⁹, 송병선 초상의

19 그림 장황이란 문양이 있는 비단처럼 그려서 꾸민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불화 장황에서 주로 나타났던 것이다. 불화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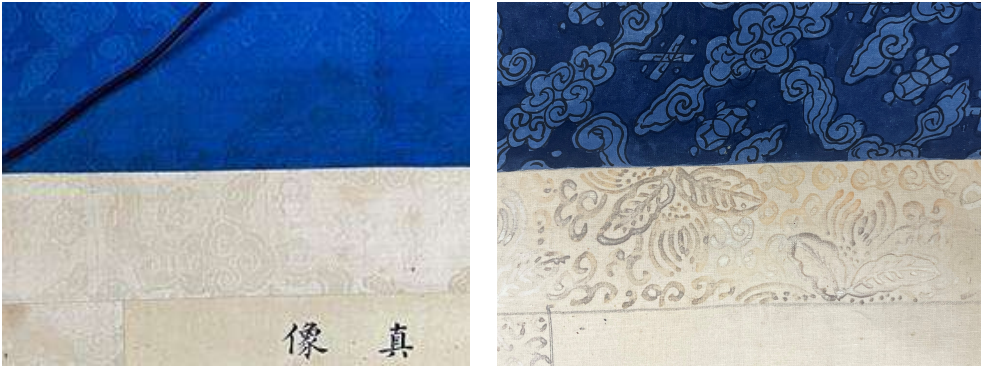


Fig. 24. 채용신, <민영달 초상>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Portrait of Min Yŏngtal*, 1900, Color on Silk, 102.0×78.5c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or.kr>))
 Fig. 25. 채용신, <송병선 초상> 세부, Ch'ae Yongsin, Detail of *Portrait of Song Pyŏngsŏn*, 1896, Color on Silk, 102.0×78.5cm, Independence Hall of Korea (Photograph by the author)

발굴을 통해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초상화에서도 불화처럼 그림 장황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장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1896년 <송병선 초상>과 1900년 <민영달 초상>은 채용신이 어진 모사 화가로 추천받을 만큼 뛰어난 기량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IV. 1900년 한양 소환 및 어진 제작

채용신은 1896년 송병선 초상을 그리면서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1899년 조정단 건립 비용 명세서에 ‘채동신(蔡東臣)’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전 37세였던 1886년 지역에서 이루어진 무술시험을 통해 지방군관인 선무군관(選武軍官)이 되었을 때도 채동신으로 기록이 남아 있으며, 그 후 1891년 고돌산(古突山, 지금의 여수 돌산) 소모별장(召募別將) 무관직을 제수받을 때와 1893년 구산(龜山) 첨사를 제수받을 때에도 관찬기록인 『승정원 일기』에 채동신으로 언급되어 있다.²⁰ 1899년 전주화원으로 조정단 과업에 참여하고 재료비

는 한 바탕의 직물에 그림과 장황 부분을 먹선이나 주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변이는 흰색, 상·하선은 녹색이나 청색으로 전체(前彩) 하였다 장연희, 「채용신蔡龍臣 초상의 장황」, 『석지 채용신 초상화』(국립전주박물관, 2020), pp. 188-222.
 20 選武軍官에 관한 기록은 『各司謄錄』 18, 『湖南啓錄』 4 참고. 『承政院日記』 高宗 28年(1891) 3月 6日(庚午), “蔡東臣 爲 古突山 召募別將”; 『承政院日記』 高宗 30年(1893) 7月 28日(戊申), “蔡東臣 爲 龜山僉使”

등을 지급받을 때에도 화사 채동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과업이 끝난 후 작성된 『조경단영건청의궤』(1900년 3월 발간)부터 채동신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1900년 『영정모사도감의궤』에도 채동신으로 되어 있어, 이름을 채동신에서 채용신으로 바꾼 것은 1900년부터임을 알 수 있다. 어진 모사는 그에게 이름을 바꾸게 만들 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채용신이 태조 어진을 모사할 화가로 추천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99년 11월 29일 홍문관 학사 이근명(李根命, 1840~1916)이 태조 어진을 모사하여 선원전 제1실에 봉안할 필요성에 대해서 상소를 올렸던 것이 시작이었다.²¹ 이에, 고종은 대신들에게 한양 안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때 민병석이 채용신을 추천하였다. 『봉명사기』에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태조 고향제(太祖 高皇帝)의 초상을 옮겨 그려서 선원전(璿源殿)의 제1실에 봉안하고자 하니, “서울 안팎에 그림에 능한 사람이 있는가?” 이에 대해 의정부 찬정 민병석이 아뢰기를, “있습니다. 전에 첨절제사였던 채용신입니다. 예전에 서울 북쪽 삼청동에 살았었고, 지금은 전라도 완산군에 있습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서울 안에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려본 적이 있는 자가 있는가?” 민병석이 다시 아뢰기를, “그가 제 초상을 그린 적이 있고, 판서 김성근, 판서 김규홍, 판서 홍순형의 초상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모두가 ‘아주 닮았다’고 했습니다.”²²

1899년 당시 채용신은 완산군(지금의 전주 일대)에 살고 있었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김성근(金聲根, 1835~1919), 김규홍(金奎弘, 1845~?). 홍순형(洪淳馨, 1858~1934) 등 고위 관료들의 초상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채용신을 어진화사로 추천한 민병석은 강원도 삼척 영경묘(永慶墓)의 비석음기(碑石陰記) 서사관(書寫官)으로 참여하였던 인물이다. 1899년 전주 조경단 건립과 삼척 영경묘, 준경묘 정비가 같은 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용신과 민병석은 영건 사업을 통해 인연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병석이 음기를 썼다고 해서 실제 비석이 세워지는 장소에 갈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한 민병석이 음기를 쓴 비석은 전주 조경단이

21 『承政院日記』 1899년 11월 29일(양력 12월 31일).

22 『奉命事記』 「記」. “(前略) 將欲移摹太祖高皇帝影, 奉安于璿源殿第一室, 無論京城內外, 有工於畫者乎? 議政府贊政 閔丙奭對曰 有之, 前僉節制使臣蔡龍臣是也. 曾居京北三清洞矣, 今在全羅道完山郡. 上曰, 都城內有曾寫眞於其人者乎? 丙奭對曰, 曾寫臣賤像, 又寫判書臣金聲根·判書臣金奎弘·判書臣洪淳馨之像, 見之者咸曰 酷肖. (後略)”

아니라, 삼척 영경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건 사업을 통해 맺은 인연이 초상화 제작으로 이어졌을지는 의문이다. 채용신이 초상화를 그려준 이들 가운데 김성근, 김규홍은 1884년, 1895년 각각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한 바 있어 흥미롭다. 그 가운데 김성근은 1884년 미국에서 포크가 외교 사절로 조선에 와서 전주를 여행하며 남긴 사진 속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초상화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²³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한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 것을 보면 그들과 전주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한양으로 소환되는 과정은 의궤에서 확인된다. 고종은 1900년 1월 8일, 윤용선, 민영환으로 하여금 전라도 관찰사에게 훈령을 내려 전주에 거주하는 채용신이 화법이 정밀하다 하여 한양으로 소환하고자 하니 여비를 지급하여 올려보내는 데에 지체하는 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였다.²⁴ 그 후 1월 10일 채용신은 노비 한 명을 데리고 한양에 도착하였다.²⁵ 이때 의궤에서는 채용신을 ‘전주화원’으로 칭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 오는 사람이니 특별히 음식과 등유 등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의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주화원 채용신이 노비 한 명을 데리고 올라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과 달라서 일이 끝날 때까지의 양식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등유는 매일 다섯 십지씩, 온돌용 장작은 반 단씩으로 이미 있는 예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어떻까 합니다. 필요한 물품(양식)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준비하여 지급하고 정산하겠습니다.²⁶

이 기록을 통해, 지방화원이 한양에 거주하면서 궁중에서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임을 알 수 있고, 올라와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여비, 식비, 생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병석이 채용신을 추천하였지만 바로 어진화사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 시재(試才)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2월 15일 의궤 기록에는 영정 모시는

23 조법중, 『화륜선 타고 온 포크, 대동여지도 들고 조선을 기록하다』 (알파미디어, 2021).

24 『영정모사도감의궤』(奎13982), 243면. “訓令 庚子正月初八日 全羅北道觀察使 今此 濬源殿奉安影幀陪來京中摹寫奉安眞殿事勅下矣 全州郡居前僉使蔡龍臣精解書法是如爲有置茲 以發訓訓到即時自本郡給盤費卽速起送俾無稽滯之弊爲宜事.”

25 『봉명사기』에는 채용신이 7일에 한양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의궤에 기록된 날짜인 10일과 달라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26 『영정모사도감의궤』(奎13982), 243면. “庚子正月初十日 全州畫員蔡龍臣亦率一奴上來現身是如乎 此人則與京居之人有異限畢役間糧饌似當題給是乎 旣燈油每日五夕式溫堞木半丹式依已例上下何如 圖章內依爲旣糧饌段試才畫員一體代錢磨鍊上下.”

중요한 일이므로 화가 선정 관련하여 실력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영정을 모사하는 일은 지극히 중요한데, 조금이라도 원본과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숨씨 좋은 화공(畫工)을 찾기가 어려우며, 화공들의 실력에 숨씨가 좋고 나쁨에 따라 평가하고 선별해야 마땅합니다. 어진의 진본을 바로 모사하게 하는 것은 불안정하니 공신(功臣)과 원로 신하(耆臣)들의 초상화 원본을 도감(都監)에서 가져와 여러 화공에게 각각 나눠주고, 각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한곳에 모여 함께 그리게 하지 않고, 매일 한 사람씩 따로 불러서 그림을 그리게 한 후, 다른 화공이 그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완성된 그림은 도감에 보관하고, 신하들이 다시 상의하여 황제께 올려서 최종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²⁷

채용신은 이미 여러 대신들의 초상을 그려 한양에까지 소문난 화가로 추천을 받았지만, 화공들과 실력을 겨룬 결과 초상화 실물 자료를 신하들이 직접 보고 서로 상의하여 고종에게 올려 최종 결정하게 했던 절차를 거쳤던 것이다. 태조 어진을 모사했던 전 과정을 정리하면 3월 7일 준원전으로 출발하여, 영정을 이송하여 3월 17일 흥덕전에 봉안하고, 3월 23일 유지 초본 제작을 시작하여 4월 13일에 채색까지 완료하였다. 14일부터 3일 동안 배접, 장황, 장축 과정을 거쳐 4월 16일 초본을 세초하여 태운 후 17일에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다.²⁸

5월 2일 태조 어진 모사의 공으로 조석진과 채용신은 수령에 중용하라는 명을 받는다.²⁹ 8월 화재로 7조 어진 모사가 진행되고 모든 어진 모사가 완료된 12월 29일, 채용신은 칠곡군수에 임명되었고, 3개월 만인 1901년 3월 14일 물러나게 된다[依願免本官].³⁰ 부친상을 당한 후 제

27 『영정모사도감의궤』“……畫師難得善手 且畫師工拙 所當取才 而以 影贖眞本 卽爲臨書 事極未安 功臣與耆臣 畫像一本 自都監取來 使諸畫師摹寫 以觀其工拙……” 이는 『봉명사기』에 채용신과 궁내부 화사 8명이 기로소 화첩을 들여와 鄭元容의 초상을 그리는 試才를 치르고, 고종이 친히 열람한 후 채용신이 그린 그림을 가장 좋다고 평가하였다는 기록과도 일치한다.

28 양진희, 앞의 논문, pp. 17-18.

29 그러나 바로 수령에 임용된 관찬 기록은 없고, 9월에 부친상이 있었다. 11월 4일(양력 12월 25일)에 이완용, 윤희순 등과 함께 중추원 의관에 임명된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나 5일 만인 9일에 면직되었는데 ‘의원(依願)’ 즉 원하는 바에 의해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튿날인 10일에 순조와 문조 어진 모사를 맡았는데 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8월 화재로 어진이 불에 타자 다시 모사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30 『승정원일기』 1900년 5월 2일에는 태조 어진 모사의 공을 시상하면서 채용신을 수령으로 중용하라는 기록이 있고 『석강실기』에 어진 모사를 마치고 칠곡군수에 바로 제수되었다고 하며, 『승정원일기』 1900년 12월에 칠곡군수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있어, 선행 연구에서는 채용신이 1900년 5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칠곡군수에 제수되었다고 보았다. 양진희, 『석지 채용신의 생애와 화조 영모화』, 『미술사연구』 47 (2024), p. 42. 그러나 5월 이후 임명 관련 관찬 기록이 추가로 없기 때문에

대로 치르지 못한 삼년상을 치르기 위해 칠곡군수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901년 5월 24일 7조 어진 모사의 공을 시상하면서 조석진과 함께 채용신을 수령에 종용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임명 기록은 관찬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이 역시 부친의 삼년상 중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³¹ 결국 4년이 지난 1905년 1월 24일 56세의 나이에 정산군수에 임명되었다.³² 1906년 3월 9일, 1년 2개월 만에 정산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정산군수는 채용신의 마지막 관직이었기에 그 이후 그가 그린 초상화 관지에는 ‘전(前) 정산군수’라고 기록되었다.

궁중화원 이력이 전혀 없는 지방 화사에게 고종이 태조 어진 모사의 주관화사 역할을 맡긴 것에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도화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소관 업무가 여러 부서를 옮겨다니게 되면서 궁중에서 필요한 회화 과업을 수행할 화원들이 고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다.³³ 궁중화원들은 사진술의 도입과 함께 사진관을 운영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인으로서 시장 수요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황철(黃鐵, 1864~1930)은 고종에게 상소하여 도화서를 혁파하고 사진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기록도 전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³⁴ 사진의 등장은 그만큼 전통 초상화 영역에 큰 사건이었을 것이다. 양기훈(楊基薰, 1843~?), 김규진(金奎鎭, 1868년~1933년) 등은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였던 화원들이었다. 채용신이 어진을 그리게 된 것은 그러한 당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진이 초상화를 점점 대체해 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사진관을 개업하는 화가들이 생겨나던 시기에, 여전히 전통화법을 고수하고 있는 채용신의 초상화가 어진 제작에는 필요했기 때문이다. 초상화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던 시기에 오히려 채용신의 가치가 높아졌던 것은 아이러니하다.

실제로 칠곡군수에 제수된 것은 1900년 12월이라고 생각된다. 『석강실기』 기록은 7조 어진을 모사한 뒤 12월에 제수된 것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 31 『승정원일기』 1901년 5월 22일. “正三品蔡龍臣筮守令調用” 7조어진 모사의 공을 시상하며 화사 조석진과 채용신을 수령에 종용하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러나 채용신은 부친상 중이라 관직에 최종적으로 제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32 『승정원일기』 1905년 1월 24일. “前郡守 蔡龍臣 任定山郡守”
- 33 도화 업무는 궁내부의 구조 변화에 따라서 규장각에서 이속되었고, 제3차 갑오개혁 중에는 장례원으로, 그 후에 이속되었다가 다시 장례원으로 이관되었다. 박정혜, 「대한제국기 화원 제도의 변모와 운용」, 『근대미술연구』 (국립현대미술관, 2004), pp. 94-99.
- 34 윤범모, 「황철 1880년대 한국사진의 선구자」, 『가나아트』 (1997. 10), p. 139. 황철이 그러한 상소를 올렸다는 것은 그의 아들 황치문(黃致文)이 1954년에 남긴 『어문공전기(魚文公傳記)』 기록에 근거한다.

V. 결론

본고는 19세기말 지방화원 채동신에서 20세기 초 어진화사 채용신으로 그가 자신의 커리어에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그 시기에 제작된 <송병선 초상> 세 점을 새롭게 채용신이 그린 것으로 고증하였으며, 1899년 그가 전주화원으로 조경단 영건 사업에 참여하여 그린 도형들을 통해 1900년 어진 모사를 하기까지의 화가로서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무수한 붓질로 안면의 피부결과 입체적 느낌을 표현했고 그로 말미암은 사실적인 결과는 이전 조선시대 어느 화가보다도 훨씬 실물을 보는 듯한 사실적인 효과를 이루어냈다. 지역에서 화원으로 공적 활동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사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며 화가로서의 입지를 정립하고 있던 채용신은 민병석 등의 초상화를 그렸던 것을 계기로 1899년 어진화사로 추천을 받고 여러 화사들과 함께 공개 테스트를 거쳐 1900년 태조 어진 모사의 주관화사가 된다. 중앙 화원제도가 무너지고 사진이 초상화를 대체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던 시점에 채용신의 전통화법에 근거한 초상화는 오히려 어진 화사로서 그의 경쟁력을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00년대 초에는 1901년 칠곡군수를 짧게 3개월 역임하고 부친의 3년상을 치르면서 정산군수도 지냈는데 이때는 본격적인 화가로서 생활했다기보다는 주문에 따라 드물게 초상화를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1900년에 어진을 두 차례 그렸고 1901년 비공식적으로 고종 어진 제작도 하였다.³⁵ 그러나 1905년 최익현 초상을 그리면서 더욱 초상화가로 이름이 알려져 1906년 관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익산으로 돌아온 후 화가로서 지역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제 그의 초상화에는 ‘중이품’, ‘전 정산군수’ 등 채용신의 품계와 마지막 관직명이 관지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었다. 채용신은 그렇게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성공적으로 정립했다. 초상화를 그려온 기량으로 어진화사로 발탁될 수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 군수직을 역임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확실한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10년부터는 전국으로 지명도가 높아져 전북을 넘어 충청북도 영동, 경상남도 진주 등을 방문하여 초상화를 그려주었다. 1910년에는 충북 영동으로 찾아가 <송병순 초상>을 그린 과정에 대한 기록은 당시 초상화에 대한 유학자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와 채용신의 명성이 전북 지역을 넘어 충청권까지 이르렀음을 알게 해 준다.

35 1902년 고종 어진 제작의 주관화사는 조석진과 안중식이었으나, 1901년에 채용신이 비공식적인 고종 어진을 제작하였음은 『석강실기』와 『봉명사기』를 통해 확인된다.

경술년(庚戌年) 선생의 연세는 일흔들이였다. 정월에 문인들이 화사를 초청하여 선생의 참모습을 묘사하려 하였다. 그에 앞서 문인들이 참모습을 묘사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선생께 말씀드렸더니, 선생께서 이르시기를, “예전에 우리 형님이 초상화를 그릴 때 내게도 함께 그리라고 권하였으나 나는 사양하고 따르지 않았다. 이제 와서 어찌 여러분의 뜻에 따를 수 있겠는가?”라 하시고, 문인들은 감히 다시 화공을 청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안시용(安時鎔)이 화사 채용신(蔡龍臣)을 초청하여 함께 선생을 찾아가 그 뜻을 아뢰었으나, 선생은 여전히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에 시용은 열흘이 넘도록 머물며 동문 사우들과 함께 더욱 간곡히 청하였고, 선생은 마침내 억지로 허락하였다.³⁶

초상화가 그려지고 2년 뒤 1912년 송병순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빈소가 있었던 영동군 학산면 활산동(活山洞)를 방문했던 석곡(石谷) 이규준(李圭駿, 1855~1923)은 채용신이 그린 <송병순 초상>을 보고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영정을 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물으니 송병순의 둘째 아들 송증헌(宋曾憲, 1878~1947)이 “전주에 사는 채용신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소문이 나서 영정 두 장을 그려 상자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9일인데 햇볕에 말리려고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³⁷

우국지사 초상이 이 시기에 많이 그려졌는데, 이는 한일합병 이후 다시금 전선을 재정비하려는 유림과 문중의 주문에 의한 것이었고 독립을 향한 그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11년에는 정읍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임병찬, 최익현, 문달환 등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다. 채용신의 명성은 문인들과 문중의 초상화 수요와 맞아떨어지면서 의병활동이 활발했던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근대 초상화 제작이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관직이 높거나 나라에 공이 있어야 그려 받을 수 있었던 초상화가 관직과 상관없이 인물의 명성이나 상업적인 금전 거래 환경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시기의 문을 열었던 것이다.

36 宋秉珣, 『心石齋集』, 庚戌 先生七十二歲. “正月門人邀畫師摹眞像. 先是門人等以摹眞之意請告先生. 先生曰 家兄摹形時 教我寫照 辭不從 今何副諸君之意 門人等不敢要畫手矣. 至是 安時鎔邀畫師蔡定山龍臣而來 稟先生 亦不肯聽 時鎔留十數日 與同門士友請愈懇至 先生強而許之. ○先生方額脩準 耳大而白 鬚疎而秀 體圓肩竦 雙眸炯然 威儀舒重 居常樸如 粹然乎其睟盎之容 灑然乎其光霽之抱 望之也儼然可畏 卽之也溫然可親.”

37 이규준 저, 안상우 외 역, 『(국역) 석곡산고·석곡십서·포상기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 115.

* 주제어(keywords)_채용신(蔡龍臣, Ch'ae Yongsin), 채동신(蔡東臣, Ch'ae Dongsin), 전주건지산도형(全州乾止山圖形, A topographic map depicting Gönjisan, the burial site of the progenitor of the Jeonju Yi clan), 조경단비각재실도형(肇慶壇碑閣齋室圖形, A topographic map depicting Hall built for a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grave and memorial monument in Chogyöngdan), 송병선(宋秉璿, Song Pyöngsön), 민영달(閔泳達, Min Yöngtal)

■ 투고일 2025년 8월 3일 | 심사개시일 2025년 8월 4일 | 심사완료일 2025년 8월 24일 ■

참고문헌

1. 사료

『奉命寫記』

『承政院日記』

『影幀摹寫都監儀軌』(奎13982)

宋秉珣, 『心石齋集』

2. 한국어문헌

김기완, 「노론의 학통적 맥락에서 본 송시열 초상화찬」, 『溯上古典研究』 35, 2012.

김상기, 「淵齋學派의 사상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9, 2016.

김중수, 「연재 송병선의 생애와 순국」, 『진복사학』 57, 2019.

류호성, 송민오 역주, 『(전주학총서49) 국역 조경단 영건청 의궤』, 전주역사박물관, 2021.

민길홍, 「송정과 칠광의 소환—1910년 채용신의 <칠광도>; 이미지를 통해 전하는 도강 김씨 문중의 메시지」, 『미술사학연구』 322, 2024.

_____, 「1900년경 채용신의 지역 활동과 초기 화풍의 정립」,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학술세미나 발표집』, 2025.

박정혜, 「대한제국기 화원 제도의 변모와 운용」, 『근대미술연구』, 국립현대미술관, 2004.

_____, 「광무 연간 국조(國祖) 묘역의 확립과 회화식 지도의 제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1, 사회평론, 2006.

박학래, 「연재학과(淵齋學派)의 형성과 전개—계산연원록(溪山淵源錄)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50, 2020.

송병선 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역, 『연재집』 6, 흐름출판사, 2024.

안선호, 「영건(營建) 관련 자료를 통해 본 조경단(肇慶壇)의 건축 특성」, 『건축역사연구』 32-5, 2023.

양진희, 「석지 채용신의 회화」, 한국학중앙연구원 미술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9.

여경훈, 「대한제국기肇慶壇 營建과 全州 史蹟地圖 제작」, 한국학중앙연구원 미술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22.

윤범모, 「황철 1880년대 한국사건의 선구자」, 『가나아트』, 1997. 10.

이규준 저, 안상우 외 역,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이두희·이충구 공역, 『석지 채용신 실기』, 국학자료원, 2004.

이성미, 『어진의궤와 미술사—조선국왕 초상화의 제작과 모사』, 소와당, 2012.

이예성, 「19세기 특정한 지역을 그린 고지도와 회화」,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 지도』, 민속원, 2005.

이욱, 「대한제국기 왕실의 존숭과 조경단 건립」,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I』,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장연희, 「채용신蔡龍臣 초상의 상황」, 『석지 채용신 초상화』, 국립전주박물관, 2020.

전지연, 「역사의 시대별 표지 장황 연구 및 복원」, 『생활문화연구』 35, 2019.
조법중, 『화륜선 타고 온 포크, 대동여지도 들고 조선을 기록하다』, 알파미디어, 2021.

Reference

1. Primary Sources

Pongmyŏngsagi
Sŭngjŏngwŏn ilgi
Yŏngjŏngmosadogamŭigwe (奎13982)
Song Byŏngsun, Shimsŏkchaejip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 An, Sŏnho, “Yŏnggŏn Kwallyŏn Charyorŭl T'onghae pon Chogyŏngdanŭi Kŏnch'ung T'ŭksŏng.” *Kŏnch'ukyŏksayŏn'gu* 32-5 (2023): 59-68.
- Chang, Yŏnhŭi, “Ch'ae Yongsin ch'osangŭi changhwang.” In *Sŏkchi Ch'ae Yong-sin ch'osanghwa*, edited by Kungnip Chŏnju Pangmulgwan (Chŏnju National Museum), XX-XX. Chŏnju: Kungnip Chŏnju Pangmulgwan (Chŏnju National Museum), 2020.
- Cho, Bŏpchong. *Hwaryunsŏn T'agoon P'ok'ŭ, Taedongyŏjido Tŭlgo Chosŏnŭl Kirok'ada*. Sŏul: Alp'amidiŏ, 2021.
- Chŏn, Chiyŏn, “Yŏksŏŭi Shidaebyŏl P'yoji Changhwang Yŏn'gu mit Pogwŏn.” *Saenghwalmunmuryŏn'gu* 35 (2019): 69-108.
- Kim, Sanggi, “Yŏnjaehakp'aŭi Sasanggwa Minjogundong.” *Han'guk tongnibundongsa yŏn'gu* 59 (2016): 5-44.
- Kim, Chongsu, “Yŏnjae Song Byŏngsŏnŭi Saengaewa Sun'guk.” *Chŏnbuksahag* 57 (2019): 243-272.
- Kim, Giwan, “Noronŭi Hakt'ongjŏng Maengnagesŏ Pon Songshiyŏl Ch'osanghwach'an.” *Yŏlsanggojŏnyŏn'gu* 35 (2012): 293-332.
- Min, Kilhong, “Songjŏnggwa Ch'ilgwangŭi Sohwan—1910nyŏn Ch'ae Yongsinŭi Ch'ilgwangdo: Imijirŭl T'onghae Chŏnhanŭn Togang Kimssi Munjungŭi Meshiji.” *Misulsahak yŏn'gu* 322 (2024): 33-57.
- _____. “1900nyŏn'gyŏng Ch'ae Yongsinŭi Chiyŏng Hwalgonggwa Ch'ogi Hwap'ungŭi Chŏngnip.” In *Kunsan' gŭndae yŏksabangmulgwan haksulesemina palp'yojip*, 2025. 7. 26.
- Pak, Hakrae, “Yŏnjaehakp'aŭi Hyŏngsŏnggwa Chŏn'gae—Kyesanyŏnwŏllokŭl Chungshimŭro.” *Yuhakyŏn'gu* 50 (2020): 111-152.
- Pak, Chŏnghye, “Taehanjegukki Hwawŏn Chedoŭi Pŏnmowa Unyong.” In *Kŭndae misul yŏn'gu*,

- edited by Kungnip Hyōndae Misulwa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XX-XX, Sōul: Kungnip Hyōndae Misulwan, 2004.
- _____. “Kwangmu yōn'gan Kukcho Myoyōgūi Hwangnipkwa Hoehwashing Chidoūi Chejang.” In *Misulsa-ūi chōngnip-kwa hwaksan: Hangsan An Hwi-jun kyosu chōngnyōn t'oemim kinyōm nonmunjip*, Vol. 1, Sōul: Sahoep'yōngnon, 2006.
- Ryu, Ho-sōng, and Min-o Song, trans. and eds. (*Chōnjuhak ch'ongsō 49*) *Kugyōk Chogyōngdan yōnggōnch'ōng ūigwe*, Chōnju: Chōnju Historical Museum, 2021.
- Song, Pyōng-sōn. *Yōnjaejip*, Vol. 6. Translated by Han'guk Kojōnhak Yōn'guso, Chōnju University. Chōnju: Hūrūm Ch'ulp'ansa, 2024.
- Yang, Chinhūi, “Sōkchi Ch'ae Yongsin hoehwa yōn'gu.” Master's thesis, Han'gukhak chungang yōn'guwōn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9.
- Yō, Gyōnghun, “Taehanjegukki Chogyōngdan Yōnggōn'gwa Chōnju Sajōkchido chejak,” Han'guk'ak chungang yōn'guwōn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2.
- Yun, Pōm-mo. “Hwangch'ōl 1880nyōndae Han'guksajinūi Sōn'guja.” *Kana at'ū* (Gana Art), October 1997.
- Yi, Kyu-jun. (Kugyōk) *Sōkkok sango, Sōkkok simsō, P'osang kimun*. Translated by Sang-u An et al. Taejōn: Han'guk Hanūihak Yōn'guwōn, 2009.
- Yi, Seongmi, *Ōjinūigwewa Miswulsa—Chosōn'gugwang Ch'osanghwaūi Chejakkwa Mosa*. Sōul: Sowadang, 2012.
- Yi, Tu-hūi, and Ch'ung-gu Yi, trans. and eds. *Sōkchi Ch'ae Yong-sin silgi*. Seoul: Kukhak Charyowōn, 2004.
- Yi, uk, “Taehanjegukki Wangshirūi Chonsunggwa Chogyōngdan Kōllip.” In *Kūndae Han'gunk Chonggyomunhwaūi Chaegusōng-Kūndaesōngūi Hyōngsōnggwa Chonggyojihyōngūi Pyōndong II*, edited by Han'guk-hak Chungang Yōn'guwōn, XX-XX, Sōngnam: Han'guk-hak Chungang Yōn'guwōn, 2006.
- Yi, Ye-seong, “19segi T'ūkchōngha Chiyōkūl Kūrin Kojidowa Hoehwa,” In *Chosōn wangsil-ūi haengsa kūrim-gwa yet chido*, edited by Chōng-hye Pak et al, 53-68. Sōul: Minsogwōn, 2005.

국문초록

전주에서 지방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1900년 어떻게 태조 어진의 주관화사로 발탁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고종은 태조 존숭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태조 어진 모사를 진행하였다. 채용신에 대한 연구는 1906년 정산군수에서 물러나 낙향한 이후 전북 지역 활동 시기에 제작된 초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해당 시기(1906년~1930년대)에 그가 제작한 초상화가 100여 점이 넘으며, 이에 비해 1906년 이전의 작품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자료의 부재로 연구의 공백이었던 1900년 이전 채용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1896년 <송병선 초상>을 그가 그린 것으로 새롭게 밝혔다. 또한, 그가 1899년 전주 조경단 영건 사업에 참여하여 그린 도형들을 통해 지방 화원로서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무수한 붓질로 안면의 피부결과 입체적 느낌을 표현했고 그 결과 조선시대 어느 화가보다도 훨씬 사실적인 효과를 이루어냈다. 중앙 화원제도가 무너지고 사진이 초상화를 대체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던 시점에 채용신의 전통화법에 근거한 초상화는 오히려 어진 화사로서 그의 경쟁력을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From a Regional Painter to a Royal Portraitist:

The Formation of Ch'ae Yong-sin's Early Style and the 1900 Royal Portrait Commission

Min Gilhong*

This study investigates how Ch'ae Yong-sin (1850-1941), who was active as a regional painter in Chönju, was appointed as the lead painter (*jugwan-hwasa*) for the production of King T'aejo's royal portrait in 1900. This commission was part of Emperor Kojong's broader project to honor King T'aejo, the founder of the Chosön Dynasty.

Previous scholarship on Ch'ae Yong-sin has largely focused on the portraits he produced in the North Chölla region after his retirement from public office as the magistrate of Chöngsan-gun in 1906. This is due to the survival of over 100 portraits from his later period (1906-1930s), while works pre-dating 1906 are exceedingly rare. To address this research gap caused by a lack of primary materials, this paper identifies the 1896 *Portrait of Song Pyöngsön* as a newly attributed work by Ch'ae.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his activities as a regional artist by analyzing the architectural drawings *tohyöng* he produced while participating in the 1899 construction of Chogyöngdan Shrine in Chönju. Chae achieved an unprecedented level of realism by employing countless brushstrokes to express skin texture and three-dimensional volume. At a historical juncture when the central government's professional painter system was collapsing and photography was emerging as a competing medium, Ch'ae's portraiture—rooted in traditional techniques yet intensified by meticulous realism—enhanced his competitiveness as a royal portraitis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